

<다음>と<나중>の順序に関する一考察

中 村 麻 結

1.はじめに

名詞<다음>と<나중>は、どちらも助詞<에>を伴って<다음에>、<나중에>という形で「ある程度の時間が過ぎたのち」といった意味で用いられている。先行研究では、これら<다음에>、<나중에>を比べて、<나중에>の方が<다음에>よりも事柄が実現される可能性が高いとされることが多いようであるが、<다음>と<나중>という名詞について実現される順序を見ると、その順とは言えないようである。本稿では、<다음>と<나중>について、<먼저>や<처음>といった対立する意味を持つ語句との用いられ方から考察する。

2. 先行研究と研究方法

2.1. 先行研究

河村光雅・金京子(2017:240)には、「나중에が示すような「あとで」よりもさらに不確かな日程の予定を表す「また今度」は、다음에を用いて表現する」とある。

また、김혜진(2013)ⁱには、<다음에>、<나중에>、<이따가>を信頼度の低い順に並べると<다음에>→<나중에>→<이따가>であるとされ、<나중에>よりも<다음에>の方が何かをする可能性が低いという。

ところが、『표준국어대사전(ウェブ版ⁱⁱ)』には、<다음>は「1 : 어떤 차례의 바로 뒤」「2 : 이번 차례의 바로 뒤」とされ、何かのすぐ後とされている一方、<나중>は、「2 : 다른 일을 먼저 한 뒤의 차례」「3 : 순서상이나 시간상의 맨 끝」とされ、すぐ後ではなくむしろかなり後である。これからすると、何かが行われる確実さは、<나중>よりも<다음>の方が高いかのように思われる。

本稿では、この<다음>と<나중>の順序について、実際の用例から検証することにする。

2.2. 研究方法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1)現代語タグ無し話し言葉コーパスから文字列検索をし、<다음에>3,512例、<나중에>2,988例を抽出した。これらの例において、<다음>と<나중>が、<처음>や<먼저>といった対立する語とともにどのように用いられているかを見ることにより、<다음>と<나중>の順序について考察する。用例の出典は、<>の中に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1)のファイル名を示す。

3. 分析

3.1. <먼저>と<다음에><나중에>

まず、<먼저>が<다음에><나중에>とともに用いられた例を見る。

<먼저>が<다음에>と対立して用いられている例は3,512例中107例・3.0%、<먼저>が<나중에>と対立して用いられている例は2,988例中82例・2.7%であった。

- (1) 먼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2BH9301>

(まず空から落ちてくる雪を見たであろうし、その次に頭に降り積もるのを感じたであろう)

- (2) 이 나라 사람들을 깨우치고 진리를 가르쳐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자면 먼저 한글을 알아야 하오. 그 다음에 한국 풍습과 진리도 알아 익혀 두는 것이 필요하오. <2CG00005>

(この国の人々を悟らせ真理を教え神の子にするには、まずハンゲルを知らねばなりませぬ。それから、韓国の風習と真理も熟知する必要があります)

- (3) 지층이 쌓일 때, 퇴적 물질들 중에서 크고 무거운 것은 먼저 가라앉고, 작고 가벼운 것은 나중에 가라앉는다. <BDXX0008>

(地層が積もるとき、堆積物質のうち大きく重いものは先に沈み、小さく軽いものは後で沈む。)

- (4) 촛농이 제일 먼저 녹는 것은 어느 막대인가? 또, 가장 나중에 녹는 것은 어느 막대인가? <2CC00072>

<다음>と<나중>の順序に関する一考察

(蠟が一番始めに溶けるのはどの棒だろうか。また、もつとも最後に溶けるのはどの棒だろうか)

<먼저>と<다음에>の場合、順序を述べており、<먼저>が「まず先に」<다음에>が「次に、それから」をあらわしているのに対し、<먼저>と<나중에>の場合、<먼저>と<나중에>が「先」と「後」という対立を成していたり、「最初」と「最後」という対立を成していたりしているという違いが見られる。<먼저>と<다음에>が順序であるのは、次のような例からもよくわかる：

- (5) 맨 먼저 울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일본 사람이다. …(中略)… 다음에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나오는 것은 그래도 독심과 오기가 있는 한국인이다. …(中略)… 끝내 견디지 못해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은 중국인이 아니라 오히려 돼지 쪽이라는 것이다. <BG00005>

(一番始めに檻の外へ飛び出してくるのは言うまでも無く日本人だ。…(中略)…次にこれ以上耐えられぬと悲鳴をあげて出てくるのは負けず嫌いな韓国人次だ。…(中略)…ついに耐えきれず外へ飛び出してくるのは中国人ではなくむしろ豚の方だということである)

(5)では、<먼저>、<다음에>、そして<끝내>と三段階になっている。こうした三段階に、<나중>が用いられている例もある：

- (6) 문학사를 1945~58 년부터 먼저 집필하고, 19 세기말~25 년까지를 그 다음에 하고 제일 난처한 1926~45 년까지를 맨 나중으로 돌려놓은 것 아니겠는가? <BRH00121>

(文学史を 1945~58 年から先に執筆し、19 世紀末~25 年までをその次に執筆し、最もやっかいな 1926~45 年までを一番後に回したのではあるまいか)

こうした、順序という観点から見ると、<다음에>の方が<나중에>よりも先であ

ることがわかると言えよう。

順序という概念で見ると、<다음>は<다음으로>という形でも用いられるが、これは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1)から 1,167 例抽出され、<먼저>と対立して用いられている例は 1,167 例中 84 例・7.2%であった。

- (7) 먼저 이른바 정학(正學: 유학)의 연원을 밝히고 다음으로 천주교도의 죄목을 논하였다. <4BH00002>

(まずいわゆる正学(儒学)の根源を明らかにし、次にカトリック教徒の罪名を論じた)

- (8) 먼저 당사자간에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어음의 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2BH9910>

(まず当事者間で債権譲渡に関する合意がなければならない。次に、手形の交付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마지막으로>や<끝으로>が用いられて三段階になっている例が 10 例見られた：

- (9) 먼저 못쓰게 된 흰 고추를 쓰레기 하치장에서 모아 옵니다. 다음으로 일반 고춧가루를 뺀 뒤 남은 고추씨를 여기에 섞습니다. 이게 매운 맛의 비결이지요, 마지막으로 공업용 빨간 색소를 여기에 섞으면 맵고 떼갈 좋은 훌륭한 고춧가루가 탄생합니다. <BK9X0030>

(まず、使えなくなった白い唐辛子をゴミ置き場から集めてきます。次に、一般の唐辛子粉をつぶした後に残った種をここへ混ぜます。これが辛味の秘訣です。最後に、工業用の赤い色素をここに混ぜれば、辛くて色合いも良いすばらしい唐辛子粉が誕生します)

こうした用法は<나중>には見られず、<다음>が<나중>とは異なり、「先と後」の「後」ではなく、「何かの次」であることがわかる。

また、<나중>は、<다음>と異なり、<가장>や<제일><맨>を伴って、単なる後でなく「一番後」を表すのにも用いられている：

<다음>と<나중>の順序に関する一考察

- (10) 사자나 호랑이, 아니 고양이만 하더라도 먹이를 잡아 제일 먼저 먹는 것이 내장이다. 그리고 수의근이나 살만 있는 부위는 제일 나중에 먹거나 내버린다. <BRH00429>

(ライオンや虎、いや猫でさえ、餌を捕って一番初めに食べるのが内臓である。そして、随意筋や肉のみの部位は一番後に食べるか捨ててしまう)

- (11) 예를 들면 당근 같은 재료를 먼저 넣고, 다 익은 상태인 햄이나 참치는 제일 나중에 넣는다. <BRBD0236>

(例えば、にんじんのような材料を先にいれ、火のすっきり通っている状態のハムやツナは一番後に入れる)

<가장>や<제일><맨>は<다음>とは共起できないが、<먼저>とは共起できるので、<먼저>と<나중>は「あとさき」という2項対立を成していると言えよう。<나중에>が<가장>や<제일><맨>を伴っている例は、2,988例中53例・1.8%であった。

3.2. <처음>と<다음에><나중에>

次に、<처음>が<다음에><나중에>と対立して用いられている例を見る。

<처음>が<다음에>と対立して用いられている例は3,512例中29例・0.8%、<처음>が<나중에>と対立して用いられている例は2,988例中63例・2.1%であった。

- (12) 처음엔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떼며 실제 일을 진행하고, 다음에 기정사실화했을 때는 안전하다고 백방으로 홍보 선전한다. <2BH9345>

(最初は事実無根だと白を切り実際はことを進め、その後既定事実化したときは安全だと方々に宣伝する)

- (13) 맨 처음에 한눈박이가 따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눈박이도 허탕이었습시다. 그 다음에 세눈박이가 따려고 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지었습니다. <2BGXXX26>

(一番はじめに一ツ目が探ろうとしてみました。しかし一ツ目も失敗でした。その次に三ツ目が探ろうとしましたがやはり同じでした)

(14) 처음에 1000 원씩 내고 나중에 100 원씩 돌려받았으니, 나그네들은 한 사람당 900 원씩 숙박비를 부담한 꼴이 되었습니다.
<BRH00125>

(最初に 1000 ウォンずつ出して後で 100 ウォンずつ返してもらったので、旅人たちは 1 人あたり 900 ウォンずつ宿泊費を負担した形になりました)

(15) 처음엔 그냥 가게 한쪽 구석이라도 얻어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응, 그러구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게가 잘 되면 나중에 화장품 같은 거랑 파는 게 좋겠어. <2CJ00018>

(はじめはちょっと店の片隅でももらって始めるんだ。うん、それから俺が考えるところでは、店がうまくいったら後で化粧品みたいなものを売るのが良いと思う)

<다음에>の場合、<먼저>の場合と同様に、三段階の例もある：

(16) 둘째, 주어가 처음 오고 객어가 다음에 오고 술어가 맨 뒤에 있으며, <2BH9623>

(二つ目、主語が最初に来て客語が次に来て述語が一番あとにあり)

(17) 많은 매킨토시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윈도우즈 버전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제는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즈 버전을 제일 처음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매킨토시 버전, 그리고 나중에 다른 운영체제 버전을 개발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BB9XF013>

(多くのマッキントッシュ専門ソフトウェア会社がウィンドウズバージョンを出し始め、今では大部分の応用プログラムがウィンドウズバージョンを一番初めに開発し、次にマッキントッシュバージョン、それから後で他の運営体制バージョンを開発するのが普通になった)

(15) では、<다음에>の次に<나중에>が用いられており、<나중에>が<다음>より後を指すのに用いられることがわかる。

<다음>と<나중>の順序に関する一考察

また、<나중에>の方が<다음에>の2倍以上<처음>と対立して用いられており、これも「あとさき」という2項対立を成しているからであろうと考えられる。<처음>の場合も、<먼저>の場合同様に、<가장>や<제일><맨>と共に用いられる：

- (18) 이 소설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맨 처음에 시작되고 가장 추악한 부분이 제일 나중에 찾아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에 감명을 받고 쓴 것이다. <BHXX0055>
(この小説は、人生の最も美しい部分が一番はじめに始まり、最も醜惡な部分が一番後にやってくるのはいかにも遺憾であるというマーク・トウェインの言葉に感銘を受けて書いたものだ)

- (19) 일본에서는 된장국을 끓일 때 된장을 맨 나중에 넣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차이 같은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BRBZ0074>

(日本では味噌汁を作るとき味噌をいちばん最後に入れるのに対し、韓国では最初から入れて煮るという違いまでは知らなかったからである)

以上で、<다음>は<처음>や<먼저>と対立して用いられた場合、<처음>や<먼저>の次の順序を表すのに対し、<나중>は、<처음>や<먼저>と対立して用いられた場合、<처음>や<먼저>が最初を表し、<나중>は最後を表す。<먼저>や<처음>が<다음>と<나중>と一緒に用いられることもあり、その場合、<먼저>または<처음>が最初、<다음>がその次、<나중>が最後を表すことがわかった。

4. おわりに

本稿では、<다음>と<나중>について、<먼저>や<처음>といった対立する意味を持つ語句との用いられ方から考察した。

先行研究では、<다음에>と<나중에>を比べて、<다음에>の方が<나중에>よりも実現される確率が低いとされているが、<먼저>や<처음>と対立して用いられている例の場合、<다음>は<먼저>や<처음>の次の順序を表すのに対し、<나중>の場合は<먼저>や<처음>が最初を表し<나중>が最後を表すという2項

対立を成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다음〉の場合は、〈먼저〉や〈처음〉が最初を表し、〈다음〉がその次を表し、もう一つの語彙が最後を表すという三段階を成している例もあった。

こうした、順序という観点から見ると、実現されるのは〈다음〉の方が〈나중〉より早い、〈다음에〉と〈나중에〉という用法になった場合なぜ〈다음에〉の方が〈나중에〉よりも実現される確率が低くなるのかについては、今後の課題としたい。

参考文献

김혜진 (2013)、ソウルアカデミーブログ Vol. 434

<http://www.seoul-ac.com/app/Blogarticleview/index/ArticleId/34>

河村光雅・金京子 (2017) 『韓国語似ている形容詞・副詞使い分けブック』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用例出典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011) “21 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2011. 12. 수정판”

i 2020. 10. 22. 参照

ii 2020. 10. 22. 検索

Nakamura Mayu

A Study of the Order of “Taum” and “Nacwung”

“다음”과 “나중”의 순서에 관한 일고찰

나카무라 마유

“다음에”와 “나중에”는 실현될 확률이 “다음에”가 “나중에”보다 낮은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어 있다.

본고에서 “먼저”와 “처음”과 대립시켜서 사용된 용례를 추출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은 “먼저”나 “처음”의 다음에 오는 순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나중”은 “앞뒤”처럼 “먼저”나 “처음”과 대립하여 마지막이나 맨 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순서라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 “다음”이 “나중”보다 실현될 순서가 빠르는데 왜 “다음에”와 “나중에”라는 형식으로 사용될 경우 “다음에”가 “나중에”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하겠다.